

# 한국 가구의 빈곤 요인분해

반정호\*

## I.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은 규모와 특징 면에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2010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4.9%로 1990년의 7.8%에 비해 빈곤규모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빈곤규모 확대의 배경에는 여성이나 노인 등의 전통적 취약계층의 빈곤화 현상뿐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해 근로소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위험에 노출되는 근로빈곤층의 증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족해체 및 결혼행태의 변화로 인해 여성가구가 가구가 크게 증가한 동시에 이들 가구의 빈곤율도 높아졌으며(석재은, 2004),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미비로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최현수 외, 2003; 홍백의, 2005; 구인회 외, 2005).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IMF 경제위기 이후 취업자의 빈곤율이 대략 10% 내외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김교성 외, 2006; 홍경준, 2005; 손병돈, 2010).

과거에는 근로(work)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기침체나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적절한 생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OECD, 2009).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노동시장 상황 악화는 근로자의 실직이나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져 해당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실제로 노동시장 성과가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겪는 빈곤의 고통은 심해지기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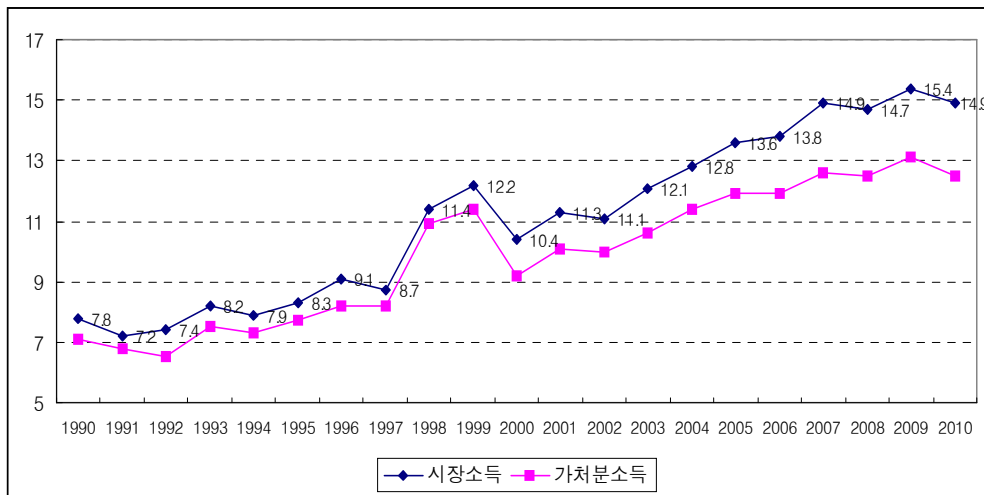
이처럼 빈곤의 위험은 노동시장 및 가족(가구) 상황에 의존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이 어떤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1인 이상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실태와 추이를 살펴보고, 노동시장 및 가구요인별 빈곤 기여도(수준)를 요인분해(decomposition) 방법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되는 실증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계동향」 자료이며, 빈곤지표는 빈곤의 규모(extent)와 심도(depth)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Foster, Greer, and Thorbecke(1981)에 의해 고안된 FGT지수이다.

## II. 빈곤실태와 추이

우리나라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은 2010년 현재 14.9%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IMF경제위기 이전에는 10% 미만의 빈곤율을 기록하던 것이 1999년 12.2%까지 증가했고 위기를 벗어나던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10.4%, 11.3%까지 낮아졌다. 그러

[그림 1]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상대빈곤율(시장소득 기준) 추이: 1990-2010년

(단위: %)



주: 1)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

2)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연금 및 사회적 수혜, 세금환급금)-공적비소비지출(연금, 경상조세, 사회보험 등)

자료: 통계청, KOSIS.

<표 1> 1인 이상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 추이 : 2006-2010년

(단위 : 원)

		빈곤율 (FGT, $\alpha=0$ )	빈곤갭 (poverty gap)	빈곤심도 (FGT, $\alpha=1$ )	빈곤선 (중위소득 50%)
경상소득	2006	0.138	0.341	0.047	718,002
	2007	0.146	0.339	0.049	757,888
	2008	0.145	0.342	0.050	786,744
	2009	0.146	0.364	0.053	810,999
	2010	0.140	0.376	0.053	861,380
시장소득	2006	0.161	0.426	0.069	701,584
	2007	0.167	0.430	0.072	731,681
	2008	0.167	0.447	0.075	759,769
	2009	0.173	0.473	0.082	780,309
	2010	0.170	0.487	0.083	824,335

주: 1)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공·사이전소득

2) 상대빈곤율=전체가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비율

3) 빈곤갭=빈곤선과 (빈곤가구의) 실제소득과의 차이(백분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나 상대빈곤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금융위기 시점인 2009년 15.4%까지 상승해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표 1>에서는 우리나라의 1인 이상 전국가구의 경상소득 및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을 제시해 주고 있다. 2006년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3.8%에서 2009년 14.6%까지 증가하고 이후 소폭으로 감소해 2010년 현재 14.0%를 기록하고 있다. 빈곤가구의 소득수준이 빈곤선(poverty threshold)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빈곤갭(poverty gap)의 경우, 2006년 34.1%에서 2010년 37.6%까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빈곤규모는 분석기간 동안 미미한 수준이나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빈곤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빈곤가구의 소득수준이 빈곤선에서 점차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규모는 소폭으로 감소하지만 빈곤가구의 소득수준은 오히려 더 낮아져 빈곤가구의 생활수준이 더 열악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빈곤율과 빈곤갭의 곱으로 정의되는 빈곤심도(FGT,  $\alpha=1$ ) 지수는 2006년 0.047에서 2010년 0.053까지 증가해 우리 사회에서 빈곤이 점차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소득 기준 전국가구(1인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2006년 16.1%에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악화되었던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6.7%, 17.3%까지 증가했고, 지난해는 이보다 소폭 하락한 17.0%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갭의 경우에도 2006년 42.6%에서 2010년 48.7%까지 증가했고, 빈곤심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는 OECD 회원국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과 빈곤갭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17.5%로 스페인(17.6%), 핀란드(17.6%), 스위스(18.0%)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표 2> OECD 회원국의 상대빈곤율 및 빈곤갭 : 2000년대 중반

(단위: %)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빈곤갭(poverty gap)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호주	28.6	12.4	71.9	23.6
오스트리아	23.1	6.6	72.5	27.4
벨기에	32.7	8.8	84.0	20.4
캐나다	24.5	11.7	56.4	31.3
체코	28.2	5.8	78.4	23.6
덴마크	23.6	5.3	72.8	24.3
핀란드	17.6	7.3	53.7	20.3
프랑스	30.7	7.1	75.9	24.4
독일	33.6	11.0	72.3	29.7
그리스	32.5	12.6	65.5	26.7
헝가리	29.9	7.1	75.9	23.4
아이슬란드	20.1	7.1	56.8	35.9
아일랜드	30.9	14.8	69.2	25.7
이탈리아	33.8	11.4	75.4	33.3
일본	26.9	14.9	69.7	34.7
<b>한국</b>	<b>17.5</b>	<b>14.6</b>	<b>42.4</b>	<b>36.0</b>
룩셈부르크	29.1	8.1	67.4	20.1
멕시코	21.0	18.4	45.4	37.9
네덜란드	24.7	7.7	70.7	20.9
뉴질랜드	26.6	10.8	73.2	33.6
노르웨이	24.0	6.8	64.8	29.4
폴란드	37.5	14.6	76.5	35.6
포르투갈	29.0	12.9	68.6	29.0
슬로바키아	27.4	8.1	79.7	25.5
스페인	17.6	14.1	38.0	32.0
스웨덴	26.7	5.3	68.1	24.8
스위스	18.0	8.7	55.7	38.7
터키	-	17.5	-	32.9
영국	26.3	8.3	70.6	24.8
미국	26.3	17.1	59.4	38.3
OECD 평균	26.4	10.6	66.9	28.6

자료 : OECD(<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OVERTY>).

26.4%를 크게 밀도는 수치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4.6%로 멕시코(18.4%), 터키(17.5%), 미국(17.1%) 등의 국가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빈곤율에 해당한다. 가처분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빈곤율 차이는 주로 공적 개입의 결과, 즉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의 재분배효과를 보여주는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정부개입을 통한 재분배·빈곤감소 효과가 미약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빈곤가구의 소득수준과 빈곤선의 격차를 나타내는 빈곤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갭은 42.4%로 스페인(38.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갭은 36.0%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빈곤갭 28.6%보다 7.4%p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멕시코, 스위스,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빈곤갭이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즉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시장을 통해 불평등하게 분배된 소득이나 이에 기초해 나타나는 높은 빈곤율이 국가의 조세 및 소득이전정책(income transfer policy)의 효과에 의해 많은 부분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여전히 미미하다.

### III. 가구 및 노동시장 특성별 빈곤 요인분해

#### 1. FGT지수 및 요인분해 방법

FGT지수는 1981년 Foster, Greer, and Thorbecke에 의해 고안된 빈곤지표로서, 빈곤층의 규모(extent)와 빈곤정도(depth)의 유의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지표는  $FGT_{\alpha} = \frac{1}{n} \sum_{i=1}^q \left[ \frac{z - y_i}{z} \right]^{\alpha}$ 로 정의되며 다른 빈곤지표와는 달리 파라미터  $\alpha$ 의 값에 따라 다소 상이한 기능을 하는데, 파라미터  $\alpha$ 는 빈곤에 대한 혐오감(aversion)을 나타내 주는 파라미터로서  $\alpha$ 값이 커질수록 이 지수는 빈곤에 대해 민감해짐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n$ 은 전체 인구(또는 가구)수,  $q$ 는 빈곤선 이하의 개인(또는 가구)수,  $z$ 는 빈곤선,  $y_i$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  $i$ 의 소득,  $\alpha$ 는 빈곤혐오감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alpha \geq 0$ )이다(여유진 외, 2005).<sup>1)</sup>

1) FGT 지수는 파라미터  $\alpha$ 의 값에 따라 빈곤의 규모, 심도, 그리고 분배를 고려할 수 있는데,  $\alpha = 0$ 인 경우  $FGT_{\alpha=0} = \frac{1}{n} \sum_{i=1}^q \left[ \frac{z - y_i}{z} \right]^0 = \frac{q}{n} = HR(\text{Headcount Ratio})$ 이므로 빈곤율과 동일하게 되며, 빈곤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또한  $\alpha = 1$ 인 경우,  $FGT_{\alpha=1} = \frac{1}{n} \sum_{i=1}^q \left[ \frac{z - y_i}{z} \right]^1 = HR \times PGR(\text{Poverty Gap Ratio})$ 이므로 빈곤율

하위집단별 FGT요인분해는  $\hat{P}(z; \alpha) = \sum_{g=1}^G \hat{\phi}(g) \hat{P}(z; \alpha; g)$ 으로 정의되며, 하위집단별 전체 FGT지표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기여도를 분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G$ 는 하위집단의 수,  $\hat{P}(z; \alpha; g)$ 는 하위집단  $g$ 의 FGT지수,  $\hat{\phi}(g)$ 는 집단  $g$ 의 비중,  $\hat{\phi}(g) \hat{P}(z; \alpha; g)$ 는 전체 빈곤에 대한 집단  $g$ 의 절대적 기여도를 의미한다. 또한 전체 불평등에 대한 개별집단의 상대적 기여도는  $[\hat{\phi}(g) \hat{P}(z; \alpha; g)] / \hat{P}(z; \alpha)$ 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원천별 요인분해는  $\hat{P}(z; \alpha; y) = \sum_{k=1}^K s_k = \left[ \sum_{i=1}^n w_i (1-y/z)^\alpha \right] / \left[ \sum_{i=1}^n w_i \right]$ 로 정의되며,  $K$ 는 개별 소득원천  $s_k$ 의 합으로 표현되며,  $w_i$ 는 가구  $i$ 에 할당된 가중치,  $n$ 은 가구수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소득원천별 절대적 기여도의 총합은 빈곤가구의 소득수준을 빈곤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끌어올렸을 때, 즉 빈곤을 경감시키는 데 개별 소득원천별로 기여하는 정도를 분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요인분해는 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빈곤선을 설정하여 진행하였으며, FGT지수의 파라미터  $\alpha=0$ , 즉 빈곤율 지표를 활용하였다.

## 2. 가구 특성별 빈곤 요인분해

<표 3>에서는 가구주의 연령별 빈곤정도(FGT)를 요인분해한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청년층(29세 미만)의 상대빈곤율은 14.2%로 높게 나타나지만, 구성비중이 낮은 까닭에 전체 가구의 빈곤율에 대한 청년층의 절대적 기여도는 0.5% 수준으로 낮고 상대적 기여도 역시 3.1%로 비교적 낮다. 장년층(30~45세 미만)의 경우는 전체 빈곤율에 대해 약 4.6%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구성비중을 고려한 상대적 기여도는 28.2%로 나타났다. 중고령층(45~65세 미만)의 경우는 전체 빈곤율에 약 32.7%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65세 이상)의 전체 빈곤율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36.0%로 타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도별로 가구주 연령에 따른 빈곤기여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는 큰 변화 없이 3%대의 상대적 기여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년층 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2006년 28.2%에서 2010년 23.2%까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구성비중이 소폭 증가한 동시에 전체 빈곤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기여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 고령층 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36.0%에서 2008년 39.0%까지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다시 40.4%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고령층 가구는 각 연도별 전체 빈곤율에 기여하는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일 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도 그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과 빈곤갭비율을 곱한 값, 즉 빈곤심도를 나타낸다.  $\alpha=2$ 인 경우 센(Sen)지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지수가 된다(여유진 외, 2005).

<표 3> 가구주 연령별 FGT 요인분해 결과

		FGT( $\alpha=0$ )	구성비중	절대적기여도	상대적기여도
2006	청년층	0.142	0.035	0.005	0.031
	장년층	0.100	0.453	0.046	0.282
	중고령층	0.126	0.420	0.053	0.327
	고령층	0.631	0.092	0.058	0.360
	전 체	0.161	1.000	0.161	1.000
2007	청년층	0.157	0.034	0.005	0.032
	장년층	0.095	0.433	0.041	0.246
	중고령층	0.131	0.425	0.056	0.333
	고령층	0.604	0.107	0.065	0.388
	전 체	0.167	1.000	0.167	1.000
2008	청년층	0.135	0.035	0.005	0.029
	장년층	0.089	0.422	0.037	0.224
	중고령층	0.139	0.432	0.060	0.358
	고령층	0.587	0.111	0.065	0.390
	전 체	0.167	1.000	0.167	1.000
2009	청년층	0.170	0.031	0.005	0.030
	장년층	0.093	0.425	0.039	0.228
	중고령층	0.139	0.436	0.061	0.351
	고령층	0.627	0.108	0.068	0.391
	전 체	0.173	1.000	0.173	1.000
2010	청년층	0.167	0.029	0.005	0.028
	장년층	0.094	0.420	0.039	0.232
	중고령층	0.129	0.442	0.057	0.335
	고령층	0.630	0.109	0.069	0.404
	전 체	0.170	1.000	0.170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있고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이 서구에 비해 잘 갖춰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결과인 동시에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해 풀어야 할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표 4>와 <표 5>에서는 1인 이상 전국가구의 가구원수 및 가구유형별<sup>2)</sup> 빈곤기여도를 분해해 놓고 있다. 우선 가구원수별 분해결과를 살펴보면, 1인가구(독신가구)의 빈곤율이

2)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상의 가구유형은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노인가구는 가구주와 그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인 노인부부가구를 말하며, 노인가구주(65세 이상인 노인) 또는 노인부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손자, 손녀 등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둘째, 모자가구는 가구주인 모친과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셋째, 맞벌이가구는 같이 사는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취업한 가구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취업자수에는 포함하나 맞벌이가구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는 맞벌이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일반가구는 위의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은 가구를 말한다(반정호, 2011).

〈표 4〉 가구원수별 FGT 요인분해 결과

		FGT( $\alpha=0$ )	구성비중	절대적기여도	상대적기여도
2006	1인가구	0.460	0.055	0.025	0.156
	2인가구	0.334	0.154	0.051	0.319
	3~4인가구	0.101	0.635	0.064	0.399
	5인 이상 가구	0.130	0.157	0.020	0.127
	전 체	0.161	1.000	0.161	1.000
2007	1인가구	0.464	0.061	0.028	0.170
	2인가구	0.339	0.161	0.055	0.327
	3~4인가구	0.102	0.631	0.065	0.387
	5인 이상 가구	0.132	0.147	0.019	0.116
	전 체	0.167	1.000	0.167	1.000
2008	1인가구	0.462	0.072	0.033	0.199
	2인가구	0.347	0.144	0.050	0.300
	3~4인가구	0.103	0.631	0.065	0.387
	5인 이상 가구	0.125	0.152	0.019	0.114
	전 체	0.167	1.000	0.167	1.000
2009	1인가구	0.499	0.071	0.036	0.206
	2인가구	0.363	0.146	0.053	0.306
	3~4인가구	0.103	0.626	0.064	0.372
	5인 이상 가구	0.128	0.157	0.020	0.116
	전 체	0.173	1.000	0.173	1.000
2010	1인가구	0.509	0.072	0.037	0.215
	2인가구	0.359	0.153	0.055	0.324
	3~4인가구	0.101	0.624	0.063	0.372
	5인 이상 가구	0.100	0.151	0.015	0.088
	전 체	0.170	1.000	0.17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시장소득 기준 독인가구의 빈곤율은 50.9%로 독인가구의 절반 가량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추세적으로도 독인가구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체 빈곤율에 기여하는 수준과 그 변화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2006년 15.6%에서 2010년 21.5%로 높아졌다. 이는 1인가구의 구성비중의 증가와 아울러 전체 빈곤율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가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구유형별로는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빈곤율이 타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두드러진다. 2006년 기준 노인가구의 77.5%, 모자가구의 28.8%는 중위소득(시장소득 기준) 50% 미만의 빈곤가구로 분석되고 있고, 2010년 노인가구는 2006년보다 6.4%p 증가한 83.9%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모자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6.8%



로 2006년에 비해 2.0%p 감소했지만 여전히 맞벌이·일반 가구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노인가구의 전체 빈곤정도에 기여하는 수준을 살펴보면 2006년 22.3% 수준에서 2010년 27.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인가구의 높은 빈곤율 및 구성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모자가구의 빈곤 기여도는 2006년 5.1%에서 2009년 3.3%까지 소폭 하락하였지만, 빈곤율과 구성비중 모두 증가한 2010년에는 4.3%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2006년 9.6%의 빈곤기여도가 2008년 8.7% 수준까지 하락하지만, 금융위기 시점인 2009년에 9.7% 수준까지 높아졌고 이후 2010년에 8.2%까지 낮아진다. 이는 금융위기의 여파가 나쁜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져 맞벌이가구의 빈곤율을 일시적으로 높였던 것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맞벌이가구의 2009년 상대빈곤율은 4.6%로 분석기간을 통틀어 가장 높다.

<표 5> 가구유형별 FGT 요인분해 결과

		FGT( $\alpha=0$ )	구성비중	절대적기여도	상대적기여도
2006	노인가구	0.775	0.046	0.036	0.223
	모자가구	0.288	0.029	0.008	0.051
	맞벌이가구	0.044	0.354	0.015	0.096
	일반가구	0.178	0.571	0.102	0.630
	전 체	0.161	1.000	0.161	1.000
2007	노인가구	0.783	0.055	0.043	0.257
	모자가구	0.285	0.029	0.008	0.049
	맞벌이가구	0.042	0.341	0.014	0.086
	일반가구	0.176	0.575	0.101	0.608
	전 체	0.167	1.000	0.167	1.000
2008	노인가구	0.751	0.058	0.044	0.263
	모자가구	0.221	0.024	0.005	0.032
	맞벌이가구	0.041	0.350	0.014	0.087
	일반가구	0.182	0.567	0.103	0.618
	전 체	0.167	1.000	0.167	1.000
2009	노인가구	0.819	0.059	0.048	0.279
	모자가구	0.221	0.026	0.006	0.033
	맞벌이가구	0.046	0.366	0.017	0.097
	일반가구	0.186	0.549	0.102	0.591
	전 체	0.173	1.000	0.173	1.000
2010	노인가구	0.839	0.055	0.046	0.270
	모자가구	0.268	0.027	0.007	0.043
	맞벌이가구	0.037	0.376	0.014	0.082
	일반가구	0.189	0.543	0.103	0.605
	전 체	0.170	1.000	0.17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3. 노동시장 특성별 빈곤 요인분해

이하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구성원의 노동시장 특성별 빈곤기여도를 분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취업가구원 비중에 따른 빈곤율과 기여도를 분해하고, 아울러 소득원천별 요인분해를 통해 가구구성원의 근로소득이 빈곤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한다.

<표 6>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빈곤율과 기여도를 제시해 주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취업가구원에 대한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2009년 전후로

<표 6>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 FGT 요인분해 결과

		FGT( $\alpha=0$ )	구성비중	절대적기여도	상대적기여도
2006	상용	0.058	0.503	0.029	0.180
	임시일용	0.267	0.069	0.018	0.114
	자영업	0.105	0.266	0.028	0.173
	무직	0.615	0.140	0.086	0.533
	전 체	0.161	1.000	0.161	1.000
2007	상용	0.061	0.504	0.031	0.184
	임시일용	0.301	0.070	0.021	0.126
	자영업	0.105	0.258	0.027	0.162
	무직	0.584	0.150	0.088	0.525
	전 체	0.167	1.000	0.167	1.000
2008	상용	0.060	0.521	0.031	0.187
	임시일용	0.312	0.063	0.020	0.118
	자영업	0.112	0.248	0.028	0.166
	무직	0.597	0.147	0.088	0.525
	전 체	0.167	1.000	0.167	1.000
2009	상용	0.024	0.410	0.010	0.056
	임시일용	0.245	0.195	0.048	0.276
	자영업	0.093	0.242	0.022	0.130
	무직	0.609	0.153	0.093	0.538
	전 체	0.173	1.000	0.173	1.000
2010	상용	0.027	0.438	0.012	0.071
	임시일용	0.275	0.172	0.047	0.279
	자영업	0.084	0.232	0.019	0.115
	무직	0.578	0.157	0.091	0.536
	전 체	0.170	1.000	0.17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시계열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통계청 「가계조사」는 2009년 조사시점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2009년 전후로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및 빈곤율에 큰 차이가 있어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범주에서 구성비와 빈곤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사상 지위의 경우 특히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구분에 있어 시계열 불일치가 큰 만큼 임금근로자에 한해서는 2009년 전후로 분리하여 분석결과를 설명하도록 한다. 가구의 종사상 지위별 빈곤기여도를 살펴보면, 비교적 고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 가구의 빈곤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2006년부터 2008년 기간까지 상용직 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18.0%에서 18.7%까지 소폭이지만 증가했고, 2009년과 2010년 기간에도 5.6%에서 7.1%로

<표 7> 가구원 대비 취업가구원 비중별 FGT 요인분해 결과

		FGT( $\alpha=0$ )	구성비중	절대적기여도	상대적기여도
2006	20% 미만	0.698	0.109	0.076	0.470
	20 ~ 50%	0.119	0.401	0.048	0.295
	50 ~ 70%	0.081	0.353	0.029	0.178
	70% 이상	0.067	0.137	0.009	0.057
	전 체	0.161	1.000	0.161	1.000
2007	20% 미만	0.702	0.113	0.079	0.474
	20 ~ 50%	0.124	0.397	0.049	0.295
	50 ~ 70%	0.082	0.353	0.029	0.174
	70% 이상	0.069	0.138	0.009	0.057
	전 체	0.167	1.000	0.167	1.000
2008	20% 미만	0.691	0.114	0.079	0.472
	20 ~ 50%	0.128	0.400	0.051	0.306
	50 ~ 70%	0.079	0.350	0.028	0.166
	70% 이상	0.069	0.135	0.009	0.055
	전 체	0.167	1.000	0.167	1.000
2009	20% 미만	0.735	0.107	0.079	0.456
	20 ~ 50%	0.134	0.387	0.052	0.301
	50 ~ 70%	0.084	0.351	0.029	0.170
	70% 이상	0.081	0.155	0.013	0.073
	전 체	0.173	1.000	0.173	1.000
2010	20% 미만	0.736	0.103	0.076	0.447
	20 ~ 50%	0.129	0.376	0.048	0.285
	50 ~ 70%	0.086	0.350	0.030	0.177
	70% 이상	0.090	0.172	0.015	0.091
	전 체	0.170	1.000	0.17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빈곤에 대한 기여도도 높아졌다. 임시일용직 가구의 빈곤기여도 역시 2008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IMF경제위기 이후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가구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분석기간 동안에는 빈곤율 하락이 동반되어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에 대해 자영업 가구가 기여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실직이나 비정황 상태에 있는 가구주 가구(무직가구)의 상대빈곤율이 약 60%에 달하고 일자리를 갖고 있으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충분한 근로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임시일용직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2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두 유형(무직+임시일용직 가구)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빈곤율 약 81.5%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는 물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job quality)에 의해 빈곤위험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고용과 빈곤의 연결고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는 가구원 대비 취업가구원수 비중에 따른 빈곤기여도를 분해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구내 취업가구원이 많을수록 빈곤율이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된다. 2010년의 경우, 취업가구원 비중이 20% 미만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3.6%로 매우 높은 반면, 50% 미만 가구에서 12.9%, 70% 미만 가구에서 8.6%, 가구원 중 70%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가구의 빈곤율은 9.0%로 취업가구원이 많은 가구에서 빈곤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연도별 빈곤기여도 수준을 살펴보면 취업가구원 비중이 20% 미만 가구의 전체 빈곤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2006년 47.0% 수준에서 2010년 44.7%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기여도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가구원 비중과 빈곤율의 높은 상관은 전체 가구의 빈곤정도에 미치는 영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2010년의 경우 전체 빈곤율에 대해 70% 이상 취업한 가구의 기여도는 9%, 취업가구원 비중이 50~70% 미만 가구의 설명력은 18% 수준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73%는 취업가구원 비중이 50% 미만 가구에서 대부분의 빈곤이 설명된다.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시장소득 기준 소득원천별 빈곤기여도는 가구주 본인의 근로소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사업소득,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가구주 본인의 근로소득이 전체 빈곤에 기여하는 수준은 2006년 51.5%에서 2010년 53.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달리 표현하면 빈곤가구가 빈곤선 이상으로 소득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구주의 근로소득 증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노동시장을 통해 획득되는 소득원천, 즉 근로소득(가구주+배우자+기타가구원)과 사업소득의 빈곤기여도는 2010년의 경우 무려 95.6%에 해당하고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는 각각 0.2%, 4.1%로 미비하다. <부표 1>에 제시된 경상소득 기준 소득원천별 분해결과를 보더라도 노동시장 소득의 빈곤기여도는 무려 91.7%로 절대적이며, 국가에 의해 이전된 소득(공적이전소득)의 기여도는 4.1%, 친지나 이웃으

로부터 이전된 소득(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는 4.0%로 미약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구성이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에 집중된 나머지 노동시장이 아닌 국가나 사적영역으로부터 이전되는 소득비중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가구는 구성원 중 노

〈표 8〉 소득원천별 FGT 요인분해 결과

		소득구성	절대적기여도	상대적기여도
2006	가구주근로소득	0.495	-0.432	0.515
	배우자근로소득	0.098	-0.054	0.064
	기타가구원근로소득	0.090	-0.074	0.089
	사업소득	0.256	-0.234	0.279
	재산소득	0.005	-0.002	0.003
	사적이전소득	0.057	-0.042	0.050
	전 체	1.000	-0.839	1.000
2007	가구주근로소득	0.502	-0.428	0.513
	배우자근로소득	0.100	-0.058	0.070
	기타가구원근로소득	0.093	-0.079	0.095
	사업소득	0.244	-0.225	0.270
	재산소득	0.006	-0.003	0.004
	사적이전소득	0.055	-0.040	0.048
	전 체	1.000	-0.833	1.000
2008	가구주근로소득	0.509	-0.436	0.524
	배우자근로소득	0.106	-0.060	0.072
	기타가구원근로소득	0.090	-0.075	0.090
	사업소득	0.234	-0.217	0.261
	재산소득	0.006	-0.003	0.003
	사적이전소득	0.055	-0.042	0.050
	전 체	1.000	-0.833	1.000
2009	가구주근로소득	0.514	-0.441	0.533
	배우자근로소득	0.108	-0.061	0.073
	기타가구원근로소득	0.088	-0.076	0.092
	사업소득	0.237	-0.215	0.260
	재산소득	0.005	-0.002	0.002
	사적이전소득	0.048	-0.033	0.040
	전 체	1.000	-0.827	1.000
2010	가구주근로소득	0.511	-0.448	0.539
	배우자근로소득	0.107	-0.058	0.070
	기타가구원근로소득	0.089	-0.074	0.089
	사업소득	0.241	-0.215	0.258
	재산소득	0.004	-0.002	0.002
	사적이전소득	0.047	-0.034	0.041
	전 체	1.000	-0.83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동시장에 참여하는 취업가구원의 비중이 낮아지거나 혹은 상실하게 되어 노동을 통한 소득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곧바로 해당가구가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시급하다.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FGT지표를 활용하여 가족 및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빈곤기여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알려져 있는 노인 및 여성(모자가구) 가구주 가구의 빈곤을 및 빈곤기여도가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가족구조 및 결혼행태의 변화에 따른 1인가구(독신가구) 증가도 전체 가구의 빈곤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과 빈곤의 관계가 매우 긴요해짐에 따라 가구주 및 가구구성원의 취업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빈곤은 빈곤층을 구성하는 집단이 매우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빈곤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가구주 및 가족구성원이 실업(비경활 포함)상태에 있는 가구는 물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충분한 근로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고용불안계층이 빈곤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근로를 통해 확보된 노동소득으로 가구의 적절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적영역의 소득이전정책 확대를 통해 빈곤탈출의 통로가 근로소득에만 의존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LI**

#### <참고문헌>

- 구인회·손병돈(2005),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추이와 변화 요인」, 『한국노년학』 25(4), pp.35~52.
- 김교성·최영(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pp.119~141.
- 반정호(2011), 「가구 구성방식의 다양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8(1), pp.85~111.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pp.167~194.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류연규(2003),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동향 및 빈곤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pp.143~160.

홍경준(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pp.119~142.

홍백의(2005),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pp.275~290.

OECD(2009), “In-Work Poverty: What Can Governments Do?,” *Policy Brief*, September.

Foster, J., J. Greer, E. Thorbecke(1981), “A Class of Decomposable Poverty Measures,” Working Paper No. 243, Department of Economics, Cornell University.

<부표 1> 소득원천별 FGT 요인분해 결과: 경상소득 기준

		소득구성	절대적기여도	상대적기여도
2006	가구주근로소득	0.479	-0.432	0.502
	배우자근로소득	0.095	-0.054	0.063
	기타가구원근로소득	0.087	-0.073	0.085
	사업소득	0.248	-0.232	0.270
	재산소득	0.005	-0.002	0.003
	사적이전소득	0.055	-0.043	0.050
	공적이전소득	0.031	-0.024	0.028
	전 체	1.000	-0.862	1.000
2007	가구주근로소득	0.483	-0.427	0.500
	배우자근로소득	0.096	-0.057	0.067
	기타가구원근로소득	0.090	-0.077	0.090
	사업소득	0.235	-0.221	0.259
	재산소득	0.006	-0.003	0.003
	사적이전소득	0.053	-0.041	0.048
	공적이전소득	0.037	-0.029	0.034
	전 체	1.000	-0.854	1.000
2008	가구주근로소득	0.489	-0.435	0.509
	배우자근로소득	0.102	-0.059	0.069
	기타가구원근로소득	0.086	-0.072	0.085
	사업소득	0.225	-0.214	0.251
	재산소득	0.005	-0.003	0.003
	사적이전소득	0.053	-0.042	0.049
	공적이전소득	0.040	-0.029	0.034
	전 체	1.000	-0.855	1.000
2009	가구주근로소득	0.490	-0.439	0.513
	배우자근로소득	0.103	-0.060	0.070
	기타가구원근로소득	0.084	-0.073	0.085
	사업소득	0.226	-0.213	0.249
	재산소득	0.005	-0.002	0.002
	사적이전소득	0.046	-0.034	0.040
	공적이전소득	0.046	-0.033	0.039
	전 체	1.000	-0.854	1.000
2010	가구주근로소득	0.486	-0.448	0.521
	배우자근로소득	0.102	-0.058	0.067
	기타가구원근로소득	0.085	-0.072	0.083
	사업소득	0.229	-0.212	0.246
	재산소득	0.004	-0.002	0.002
	사적이전소득	0.045	-0.034	0.040
	공적이전소득	0.049	-0.035	0.041
	전 체	1.000	-0.86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